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고령층의 가구구조 변화와 상호돌봄을 위한 정책과제\*

김가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1. 들어가며

가구구조의 변화는 우리 사회 전 분야의 실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가구(家口)는 1인 단독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로서, 현재 우리나라 가구구조의 주요 변화는 가구원 수의 감소, 가구주의 고령화 및 여성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가구구조의 변화는 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질적 변화를 수반한다. 특히 ‘돌봄’은 과거 전통적으로 가정 내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졌으나, 가구구조 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 변화로 인하여 점차 공적 영역의 중요한 정책 어젠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가구구조의 변화와 돌봄의 관계에 있어서 고령층은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1인가구 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

1인가구의 경우, 다른 세대에 비해 사별 등 비자발적인 동기로 1인가구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노인 1인가구는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건강, 사회적 관계 등 돌봄에 있어서 더욱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주된 가구형태로 자리 잡은 1인가구의 현황을 고령층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노인 1인가구의 상호돌봄모델로서 ‘노노케어’의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우리나라의 1인가구 현황 및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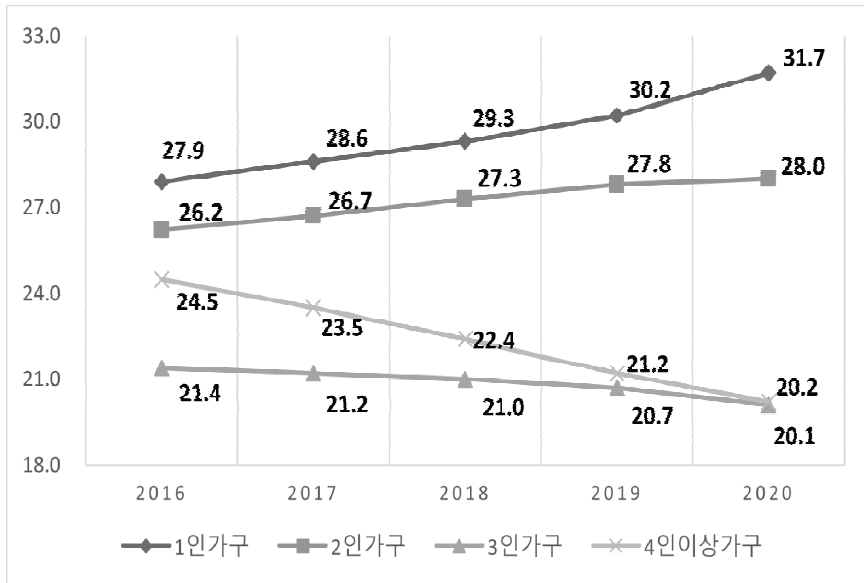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주된 가구형태는 2005년 4인가구, 2010년 2인가구, 2015년 1인가구로 변화해왔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가구 규모는 전체의 31.7%(666.3만 가구)이며, 2047년에는 37.3%

\* 본 글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ISSUE PAPER 김가원(2021) 「가구구조의 변화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운영 방향」, 김가원(2022) 「상호돌봄의 가치, 노노케어 사업의 성과와 과제」의 자료를 활용하여 재작성한 것입니다.

(832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향후 30년 간 모든 시·도에서 1인가구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2047년 강원(41.9%),

충북(41.8%), 대전(41.7%) 등의 순으로 7개 도시에 1인가구 비중이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1], [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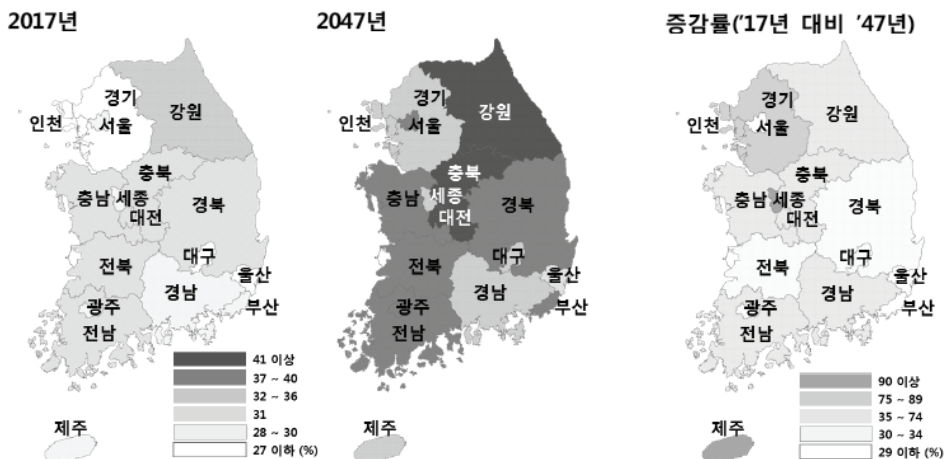
(단위: %)



원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통계청(2021)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그림을 작성함.

[그림 1] 우리나라 가구원 수별 가구 추이(2016~2020년)



자료: 통계청(2019). 장래가구특별추계(시도면): 2017~2047년, 2019.12.16.

[그림 2] 시도별 1인가구 구성비 및 증감률(2017~204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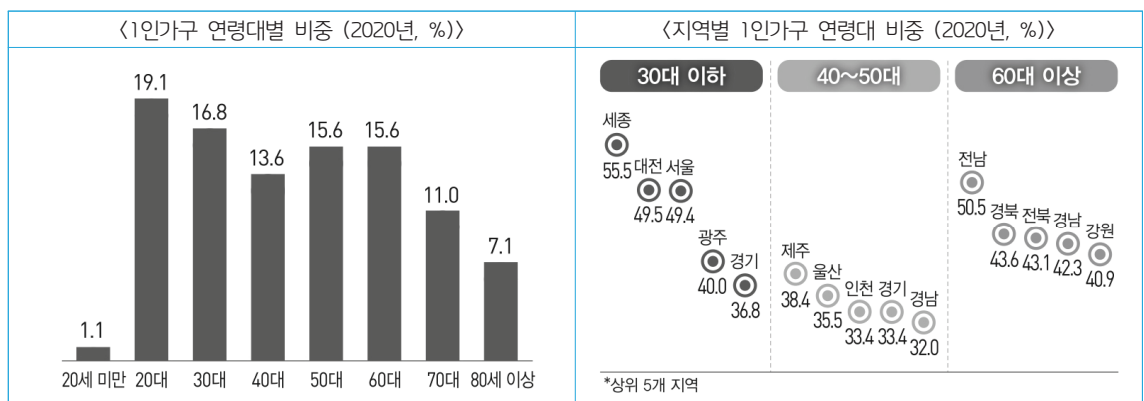
연령대별 1인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20대가 19.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0대 16.8%, 50대, 60대가 각각 15.6% 등의 순이다. 시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30대 이하의 1인가구는 세종, 서울, 경기 등에서 높게 분포되어 있고, 60대 이상 1인가구는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 지역에 높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3], [그림 4] 참조).

이처럼 각 연령대별 1인가구의 형성은 사회구조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상대적으로 청년층 1인가구는 타 지역으로의 진학, 취업을 통한 분리 및 독립, 미혼·만혼·비혼주의 확산으로 인한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중장년층의 경우 비혼주의, 이혼, 맞벌이 및 자녀교육으로 인한 기러기 부부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혼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노년층은 고령화와 기대여명의 차이로 인한 사별이 주된 원인으로서, 동거 가족 구성원의 사망에 의해 1인가구가 형성되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고된다(기획재정부, 2020).

1인가구는 전체 가구와 비교했을 때 생활 전반에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계청(2021)의 ‘통계로 보는 1인가구’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가구 평균 수준에 비해 2020년 기준 1인가구의 건강관리 실천율은 ‘적정 수면’ 6.3%p, ‘아침 식사’ 5.3%, ‘정기 건강검진’ 4.3%p, ‘규칙적 운동’ 1.7%p가 더 낮다. 둘째, 1인가구의 연간 의료비는 2018년 기준 95만 5천 원으로 18세 이상 전체 의료비(68만 5천 원)대비 약 1.4배 수준이다. 전체 인구와 1인가구의 연간 의료비 격차는 약 27만 원이며, 2015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1인가구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2020년 기준 22.8%로, 전체 만족도(27.0%)보다 4.2%p가 더 낮다. 최근 10년 간 1인가구의 여가생활만족도는 전체 인구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불만족의 주된 원인은 경제적 부담(48.8%), 건강 및 체력 부족(1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층 1인가구는 2000년 54.4만 명에서 2010년 99.1만 명, 2020년 158.9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30년 258.6만 명, 2040년 362.3만 명 등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고령층 1인가구의 절대 수가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자료: 통계청(2021). 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 2021.12.8.

[그림 3]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1인가구 현황

돌봄 등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노인 1인가구는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상대적 취약성을 보이며, 이는 사회적 고립 및 단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노인 1인가구의 돌봄은 시급한 사회문제라 할 수 있다.

### 3. 노노케어 사업의 현황

노노케어(老老-care)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것을 의미하는데, 초고령사회에 급증하는 노인돌봄 수요에 대응한 상호돌봄 모델로서 의미를 지닌다. 노노케어는 동년배 노인이 지역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말벗 등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중 하나다. 그간의 연구에 따르면, 노노케어는 노인일자리 참여노인 측면에서 보충적 소득 지원, 사회활동에 따른 건강 증진 등 노인복지 모델로서 효과가 있으며, 수혜노인 측면에서는 동년배와의 정서적 교류로 우울감 해소 등 심리정서적 효과가 있다(홍석원 외, 2015). 노노케어 사업의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노케어 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내 공공형에 속

하는 세부 사업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 시행 이후로 현재까지 다양한 변화를 거듭한 가운데, 노노케어는 2005년 ‘노인간병사업’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유지되는 대표적인 ‘돌봄영역 노인일자리사업’이다. 처음 2005년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내 ‘교육복지형’에서 ‘노노간병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2006년 ‘노노케어’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 이후 ‘거동불편요보호자 돌봄서비스’, ‘독거노인 돌봄지원사업’, ‘경증치매 노인 활동보조사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변화되었다가, 2016년부터 지금의 ‘노노케어’ 사업으로 명칭이 정착되었다.

노노케어의 주요 내용은 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증치매 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돌봄 취약노인의 가정에 방문해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역할은 주로 돌봄 취약노인에 대한 안부 확인, 말벗 등 생활 안전 점검이다. 노노케어 활동을 희망하는 노인은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조건과 마찬가지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참여 기준으로 한다. 노노케어 참여노인은 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 활동

〈표 1〉 노노케어 사업의 개요

구분	내용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li> <li>- 안부 확인, 말벗 등 생활안전 점검</li> </ul>
참여자 기준 및 활동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12개월, 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li> <li>· (자격)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li> <li>· (급여) 1인 월 270,000원</li> <li>· (재원) 지자체 경상보조</li> </ul>
수요자 선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거노인, 조·손 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증치매 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 노인</li> <li>- (우선순위) 연령, 경제상태, 건강 등 연중 보호 필요성 높은 순으로 지원</li> <li>- (유사중복사업 제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재가서비스 대상 노인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활간병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도우미(보훈처), 방문요양서비스 등</li> </ul> </li> <li>- (예외적 허용) 수요자의 서비스 필요성 등을 고려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의 서비스 수혜 허용</li> </ul>

자료: 각 연도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안내. 제작성

을 통해 월 27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는다(〈표 1〉 참조).

노노케어 참여노인과 수혜노인의 규모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노노케어 참여노인은 68,827명, 노노케어 수혜노인은 103,765명으로 약 1:1.5 수준으로 매칭되어 있다. 최근 5년간 노노케어 참여노인 및 수혜노인의 규모는 다소 감소 추세에 있는데, 참여노인의 경우 2017년 대비 2021년 18.6%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4.9%가 감소하였다. 노노케어 수혜노인은 2017년 대비 2021년 25.9%가 감소하고, 연평균 7.1%씩 감소하여 노노케어 참여노인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원인은 코로나19로 팬믹으로 인한 가정방문 돌봄서비스 위축, 노노케어

참여 및 수혜 대상에 대한 수요 발굴·매칭 및 지역 내 돌봄서비스 간 연계의 어려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볼 수 있다(〈표 2〉 참조).

노인일자리사업 신청을 통해 노노케어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성별, 연령, 가구형태, 교육수준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노케어 참여노인은 여성이 8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최근 5년간 성별 분포는 2017년(79.9%)을 제외하고 여성 비율이 계속해서 80%를 상회하고 있다. 한편 이들의 연령은 2021년 기준 평균 75.9세로 2017년(75.4세) 대비 평균 1.5세 증가하였고, 특히 80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2017년(19.2%) 대비 2021년(31.7%) 약 1.7배나 증가하였다. 이처럼 노노케

〈표 2〉 노노케어 참여자, 수혜자 현황(2017~2021년)

(단위: 명)

구분	5년 평균	2017	2018	2019	2020	2021
노노케어 참여자	80,491	84,589	85,530	84,678	78,833	68,827
노노케어 수혜자	125,685	140,055	137,456	133,231	113,916	103,765
참여자:수혜자	1 : 1.6	1 : 1.7	1 : 1.6	1 : 1.6	1 : 1.4	1 : 1.5

자료: 2017~2021년 각 연도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계동향. 제작성.

〈표 3〉 노노케어 참여자 성별, 연령별 분포 (2017~2021년)

(단위: 명, %, 세)

연도	전체1)	성별 (%)		연령대별 (%)					평균연령
		남성	여성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2017	92,309 (100.0)	20.1	79.9	11.5	29.9	39.4	16.4	2.8	75.4세
2018	93,638 (100.0)	18.8	81.2	9.8	28.1	39.8	18.8	3.5	75.9세
2019	93,362 (100.0)	18.3	81.7	9.0	26.3	38.5	21.8	4.4	76.3세
2020	87,013 (100.0)	18.1	81.9	8.3	25.8	37.0	23.3	5.6	76.7세
2021	77,917 (100.0)	18.3	81.7	8.5	25.1	34.7	25.1	6.6	76.9세
5년 평균	-	18.7	81.3	9.4	27.0	37.9	21.1	4.6	76.2세

주: 1) 중도포기자가 포함된 누적참여자 수

자료: 2017~2021년 각 연도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계동향. 제작성.

어 참여노인은 고령의 여성 노인들이 다수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노케어 참여노인의 가구형태는 독거(42.0%), 노인부부(31.1%), 가족동거 등(26.9%)의 순이다. 특히 1인가구(독거) 노인의 비중은 2017년(39.7%) 대비 2021년 기준 2.3% 늘었고, 반대로 가족동거 등 비중은 3.5% 감소하였다. 노노케어가 지역 내 돌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 말벗 등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노노케어 참여노인의 고립감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노노케어 참여노인의 교육 수준은 5년 평균 초등학교 졸업이 51.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무학 16.9%, 고졸 이상은 12.0%에 불과하다.

#### 4. 노노케어 사업의 실태 분석 결과

다음은 노노케어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노노케어 참여노인과 수혜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조

사는 2022년 7~8월 4주간 전문조사기관의 조사원에 의한 면접 및 전화조사로 진행되었으며,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참여노인 352명, 수혜노인 305명이다. 본 글에서는 조사 결과의 일부를 제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향후 노노케어 이용 의향, 참여노인 및 수혜노인의 이용 전후 변화에 대한 인식, 참여노인의 지역사회 공헌 인식에 대한 것이다.

먼저 조사에 따르면, 현재 노노케어 사업을 이용하는 참여노인과 수혜노인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노노케어를 이용하고 싶다’는 의견이 각각 98.6%, 93.1%로 매우 높았다. 이는 노노케어가 정책당사자로 하여금 동년배 간 정서적 지지 측면에서 유효한 정책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특히 향후 초고령사회 급증하는 노인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노케어 사업이 지니는 함의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표 5〉 참조).

〈표 4〉 노노케어 참여자 가구형태, 교육수준별 분포

(단위: %)

연도	전체 <sup>1)</sup>	가구형태별			교육수준별 <sup>2)</sup>				
		독거	노인부부	가족동거 등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이상
2017	92,309 (100.0)	39.7	29.9	30.4	18.1	50.4	18.4	11.0	2.2
2018	93,638 (100.0)	41.2	29.6	29.2	19.7	56.1	20.5	1.2	2.4
2019	93,362 (100.0)	41.9	29.5	28.6	17.0	50.6	18.9	11.3	2.2
2020	87,013 (100.0)	42.1	30.0	27.9	15.6	50.9	19.4	11.8	2.3
2021	77,917 (100.0)	42.0	31.1	26.9	14.0	50.1	20.7	12.6	2.6
5년 평균	-	41.4	30.0	28.6	16.9	51.6	19.6	9.6	2.4

주: 1) 중도포기자가 포함된 누적참여자 수

2) 교육수준은 일부 응답자의 결과만을 제시한 것이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총인원 대비 유효 응답율: '17년 54.9%, '18년 62.8%, '19년 72.5%, '20년 73.5%, '21년 74.4%)

자료: 2017~2021년 각 연도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계동향. 재작성.

〈표 5〉 향후 노노케어 이용 의향

(단위: %)

구분	참여노인 (n=347)	수혜노인 (n=284)
계속 이용하고 싶다	98.6	93.1
이용하고 싶지 않다	0.9	3.6
잘 모르겠다	0.5	3.3

자료: 김가원 외(2022). 초고령사회 돌봄영역 노인일자리사업 고도화 방안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재작성.

노노케어 수혜노인을 대상으로 노노케어 이용 전후 변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가장 긍정적인 변화(약간좋아졌다+매우좋아졌다) 수준이 높았던

항목은 ‘외로움, 우울 등 마음상태 개선’(60.3%)이다. 그다음으로는 ‘청결상태 등 생활환경의 개선’(58.7%), ‘정보를 얻거나 외출 시 도움 등 일상생활에 도움’(56.8%), ‘신체적 건강상태 개선’(47.9%), ‘끼니 해결, 생필품 등 경제적인 도움’(33.8%)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노노케어 참여노인의 경우, 이용 전후 변화에 대해 모든 항목에서 90% 이상 높은 수준의 긍정적 변화 인식을 보였다. 특히 긍정적인 변화(약간좋아졌다+매우좋아졌다) 수준이 높았던 항목은 ‘경제적 보탬으로 이전에 쓸 수 없던 곳에 돈을 쓸 수 있게

〈표 6〉 돌봄 대상자의 이용 전후 변화

(n=305, 단위: %, 점)

구분	수혜노인					평균(점)
	전혀 변화없다	별로 변화없다	보통	약간 좋아졌다	매우 좋아졌다	
신체적 건강상태 개선	9.1	19.7	23.3	29.5	18.4	3.28(1.2)
외로움, 우울 등 마음상태 개선	8.9	13.8	17.0	35.1	25.2	3.54(1.3)
정보를 얻거나 외출 시 도움 등 일상생활에 도움	7.5	16.4	19.3	31.5	25.3	3.50(1.2)
끼니 해결, 생필품 등 경제적인 도움	18.6	26.9	20.7	19.7	14.1	2.84(1.3)
청결상태 등 생활환경의 개선	9.8	15.4	16.1	27.5	31.2	3.55(1.3)

주: 1) ‘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분석함.

자료: 김가원 외(2022). 초고령사회 돌봄영역 노인일자리사업 고도화 방안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재작성.

〈표 7〉 돌봄 제공자의 이용 전후 변화

(n=347, 단위: %, 점)

구분	참여노인					평균(점)
	전혀 변화없다	별로 변화없다	보통	약간 좋아졌다	매우 좋아졌다	
경제적 보탬으로 이전에 쓸 수 없던 곳에 돈을 쓸 수 있게 되었다	-	-	4.8	58.5	36.6	4.32(0.56)
이전보다 여가시간을 활기차게 보내서 몸이 건강해졌다	-	0.3	7.7	49.7	42.3	4.34(0.63)
이전보다 외로움과 우울한 마음이 줄어들었다	-	-	8.8	48.9	42.3	4.34(0.33)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다	-	0.3	7.7	56.3	35.8	4.28(0.61)

주: 1) ‘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분석함.

자료: 김가원 외(2022). 초고령사회 돌봄영역 노인일자리사업 고도화 방안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재작성.



되었다’(95.1%)이다. 그다음으로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다’(92.1%), ‘이전보다 여가시간을 활기차게 보내서 몸이 건강해졌다’(92.0%), ‘이전보다 외로움과 우울한 마음이 줄어들었다’(91.2%)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마지막으로 노노케어 참여노인의 지역사회 공헌 인식 수준을 살펴본 결과, 긍정적 응답(그렇다+매우그렇다) 수준이 가장 높았던 항목은 ‘지역사회에 노인돌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91.2%)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89.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다른 노인들과 서로 협력한다’(84.9%), ‘돌봄 활동에 있어서 기관으로부터 전문적인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다’(81.2%) 순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 5. 함의

돌봄은 인류의 생존과 발달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으로서, 전통적으로는 주로 가정 내 여성의 역할

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돌봄은 사적 영역을 넘어, 공적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가구구조의 변화는 이러한 ‘돌봄의 사회화’를 가속화하였다. 고령층의 주된 가구구조가 점차 1인가구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향후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더욱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급증하는 노인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상호돌봄모델로서 노노케어의 의미를 고찰해보았다. 향후 노노케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층 가구구조 변화에 따라 노인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특히 노인 1인가구의 삶의 질 제고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인 1인가구에 대한 높은 사회적 지지 수준은 노인의 건강증진행위를 통한 자기돌봄 수준을 높인다(김가원·허준수, 2021). 노노케어 노인일자리사업은 단순히 기능적 차원에서의 돌봄 서비스 제공이 아닌, 돌봄제공자와 대상자가 상호 동년배라는 관계 속성을 통해 심리·정서적 측면에서의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노노케어 노인일자리사업을 매개로 지역 내에서 노인들이 정서적 교류

〈표 8〉 돌봄 제공자의 지역사회 공헌 인식

(n=347, 단위: %, 점)

구분	참여노인					평균(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역사회에 노인돌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	0.3	8.5	68.2	23.0	4.14(0.56)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	0.6	10.2	58.8	30.4	4.19(0.63)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다른 노인들과 서로 협력한다	0.6	2.6	12.5	55.1	29.8	4.12(0.74)
돌봄 활동에 있어서 기관으로부터 전문적인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0.3	2.0	16.5	56.8	24.4	4.03(0.72)

주: 1) ‘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분석함.

자료: 김가원 외(2022). 초고령사회 돌봄영역 노인일자리사업 고도화 방안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재작성.



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인 1인가구의 다차원적인 욕구에 대응한 종합적인 정책 연계가 필요하다. 노인 1인가구의 행복감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 1인가구의 행복감 수준은  $\cap$ (뒤집어진 U자) 곡선 형태를 띤다(김가원, 황혜신, 2021). 특히 60대 노인 1인가구의 낮은 행복감은 사별로 인한 1인가구 형성 기간이 고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고, 이 시기 퇴직 경험으로 소득의 감소, 사회적 교류 단절 등 생활 전반에 복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에 개인적 측면에서 노년기 가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노년기 삶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 지역사회 내 상호돌봄의 가치를 실현하는 노노케어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돌봄 거버넌스 측면에서 사업 고도화가 필요하다. 본 글에 따르면, 향후 계속해서 노노케어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참여노

인, 수혜노인 모두 90%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한 노노케어는 참여노인에게 경제적 도움(95.1%) 뿐 아니라, 자아실현(92.1%), 신체적 건강(92.0%), 심리적 건강(91.2%) 개선을 가져오며, 수혜노인에게 는 심리적 건강(60.3%), 생활환경 개선(58.7%), 일상생활 도움(56.8%), 신체적 건강(47.9%)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노인인구의 증가 및 노인세대 내 1인가구 규모 증가로 인해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노노케어가 노인일자리사업의 세부 활동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봄 정책 거버넌스 차원에서 다양한 돌봄 제공주체 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노인돌봄의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돌봄 정책 간 적극적인 연계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김가원·천재영·홍선미·강은나·이상우·채주석·유선치·선지원·김담이(2022). 초고령사회 돌봄영역 노인일자리사업 고도화 방안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김가원·황혜신(2021). 노인 1인가구의 연령대별 행복감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76(1): 45~70.
- 김가원·허준수(2021). 노인 1인가구의 자기돌봄 유형화 및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76(2): 159~188.
- 기획재정부(2020).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Ⅰ), 2020. 6.25. 보도자료.
- 통계청(2019). 장래가구특별추계(시도편): 2017~2047년, 2019.12.16., 보도자료.
- 통계청(2021). 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 2021.12.08. 보도자료.
- 통계청(2022).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2022.9.5., 보도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7). 2017년 노인일자리 통계 동향.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8). 20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통계 동향.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9).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통계 동향.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20).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계 동향.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21).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계 동향.